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4) : 495~510, 2014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5(4) : 495~510, 2014
http://dx.doi.org/10.7856/kjcls.2014.25.4.495

농촌노인의 자녀 및 이웃과의 사회적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이 신 영† · 윤 진 숙[1] · 조 희 금[2]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1],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2]

Effects of Social Support with Adult Children and Neighb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dividuals in Rural Areas: The Living Arrangement

Shin-Young Lee† · Jin-Sook Yoon[1] · Hee-Keum Cho[2]
Dep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1]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Daegu, Korea[2]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with adult children and neighb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dividuals in rural areas. The analysis employed a sample of 764 elderly individuals residing in rural area.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 chi-square test, a t-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respondents reported moderate life satisfaction. Those respondents living alone were less likely to report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ith a spouse. Second, th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be in contact with their neighbors than their adult children. Third, th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receive soci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than provide it to them. By contrast, th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neighbors than receive it from them. Fourth, economic status and contact with adult children and neighbors had signigicant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espondents. Gender, religion,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increased contact with adult children, and instrumental support to neighbor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two-person household.

Key words: rural elderly,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elderly two-person household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of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PJ009555) of Korea
접수일: 2014년 10월 23일 심사일: 2014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4일
†**Corresponding Author**: Lee, Shin-Young Tel: 82-53-580-5997 Fax: 82-53-580-5313
e-mail: sylee@km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그동안 정부는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과 건강악화로 인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수행하여왔다.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노인들은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이에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지원 이외에 심리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농촌에서는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농촌지역은 이미 노인이 전체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2차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은 경우(Park & Han 2002) 또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Kang & Lee 2007; Heo 2012; Jeong 2012)등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와 척도의 차이로 보이지만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배우자유무와 노인가구유형에 따라서도 노인의 정신건강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관적 만족감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가족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사회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3). 또한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인 경우가 독거노인가구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Lee et al. 2003).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독거노인은 노인부부보다 낮은 수입, 낮은 생활만족도, 낮은 사회적지지를 보여주며, 우울과 고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 et al. 2006; Liu & Guo 2008). 따라서 노인가족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와 상실을 경험하며,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Schilling 2006), 사회적 지원은 이런 상실에 대한 보상작용을 한다(Schwarz et al. 2005). 노인의 사회적 지원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혈연관계망에 초점을 두어 자녀 및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이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Kim & Kim 2000; Lee 2003; Yoon 2003; Lee & Park 2009; Oh & Lee 2011; Heo 2012). 최근에는 자녀 이외에 주요 사적 관계망인 친구 및 이웃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친구는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 비해 접촉이 용이하고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성(accessibility)은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이동성에 제한성을 갖는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Bea 2004).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망은 노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원천이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과 혈연집단의 자원이 감소되어감에 따라 친구 및 이웃 등과 같은 비혈연집단으로 부터의 지원수준이 증가하고,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된다(Nocon & Pearson 2000; Jun 2003). 또한 가족의 부양의식의 약화되고 자녀와의 별거에 따라 친구 및 이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농촌에서는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대다수이며, 이웃과의 왕래가 도시에 비해 빈번하므로 이웃과의 사회적지원에 관한 탐색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웃 수가 많고, 자녀 및 이웃과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Lee et al. 2003; Kim et al. 2008; Lee & Chun 2011; Jeong 2012). 국외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족, 친구, 이웃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지원이 낮을수록 노인의 고독감 및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Wu et al. 2010; Xie et al. 2010). 한편 친구이웃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으며(Chou et al. 2006; Russell, 2009), 친구이웃과의 관계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이나 접촉빈도가 삶의 질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otts 1997; Choi & Lee 2003). 또한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자녀의 사회적지원이 영향

을 준다는 연구(Heo 2012)가 있는 반면에, 자녀의 사회적지원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Lee & Park 2009).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를 볼 때 자녀뿐 아니라 이웃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사회적지원의 일방적 수혜보다는 노인과 비공식관계망과의 쌍방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지원을 받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나(Yeung & Fung 2007), 지원을 받는 노인보다는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Schwarz et al. 2005; Kim et al. 2008). 노년기의 사회적지원 제공은 노인에게 심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반면에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생활만족도의 기초가 될 수 있다(Lowenstei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원의 수혜와 제공 양 측면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혈연관계망인 자녀와 비혈연관계망인 이웃과의 사회적 지원구조와, 수혜와 제공 양 측면의 사회적지원 기능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배우자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도 달라지므로 가구유형별로 생활만족도와 그의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전체적인 사회관계망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유형별 농촌노인의 자녀 및 이웃과의 사회적 지원은 어떠한가? 둘째, 거주유형별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거주유형별 농촌노인의 자녀 및 이웃과의 사회적 지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생활 전반 또는 세부적 영역에서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정의 할 수 있다(Schwarz et al. 2005).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촌노인 203명 대상의 조사에서 생활만족도 점수는 24점 만점에 평균 9.73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Park & Han 2002). 다른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는 17점 만점에 6.83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Kim et al. 2002). 반면에 생활만족도가 보통 또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난 연구를 살펴보면, Kang & Lee(2007)는 농촌노인 326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Jeong(2012)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농촌노인 275명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2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Heo(2012)의 연구에서도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4.93점으로 7점 만점에 보통수준(4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도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 Lee & Chun(2011)은 농촌지역노인의 생활만족도가 5점 만점에 3.45점으로 도시노인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연구도 있다(Sim & Park 2002). 생활만족도 이외에 우울 변수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농어촌 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우울 성향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Sohn 2006; Son 2010; Kim & Lee 2012).

가구유형별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국내연구에서 독거노인가구가 노인부부가구보다 행복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Lee et al. 2003). 캐나다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독거여부가 우울성향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John et al. 2006), 또한 독거노인이 노인부부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eh & Lo 2004).

2. 농촌노인의 사회적지원

사회적 지원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관계망과의 지원과, 정부나 복지기관 등의 공식적 자원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도움을 말한다. 사회적 지원의 측정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구조적 측면은 주로 연락이나 접촉빈도, 지리상의 거리, 지원망의 크기를

말하며, 기능적 측면은 지원주체로부터 지원이 어떠한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것인지를 의미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파악할 때에는 주로 하위영역으로 정서적 영역, 도구적 영역(가사지원 등), 신체적 영역(간병 수발 등), 경제적 영역(현금 및 현물 지원)등을 포함시키지만, 하위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영역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지원을 살펴보면, 국외 선행연구들은 대개 노인의 친구 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거주형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Chou & Chi 2000; Aday et al. 2006).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비동거 자녀 평균 2.4명, 친척 2.92명, 친구이웃 5.49명으로 친구이웃이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3). 한편 친구와 이웃을 분리하여 사회적 지원망 크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경우 평균 친구 수 3.47명, 이웃 수 3.84명으로 비슷하였다(Suh & Lim 2004).

전국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생존자녀는 농촌노인이 4.33명으로 도시노인 3.50명에 비해 규모가 컸으며, 동거자녀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많았다. 농촌노인과 비동거자녀와의 왕래빈도는 월 1회 33.8%로 가장 많았으며, 연락빈도는 주 1회 36.5%로 가장 많았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농촌노인 254명 대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동거자녀와 전화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는 주1회 이상이 약 56%이며, 대면접촉의 경우에는 월1회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였다(Lee & Park 2009). 농촌독거노인 315명 대상의 연구에서는 별거자녀와의 만남이 월 1회71%로 나타났다(Kim et al. 2002).

이웃과의 접촉빈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노인의 친구 · 이웃과의 왕래빈도는 거의 매일 63.0%로 도시노인 34.0%의 약 2배로 교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농촌과 도시노인의 친구 수와 접촉빈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도시노인이 농촌노인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친구가 있으나,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친구와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Seo & Lee 1995).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와는 거주 거리가 먼 반면, 이웃과 가까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Kim & Lee (2012)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친구 · 이웃과의 왕래빈도는 거의 매일 약 54%, 일주일에 두세번 약 28%로 전체 농촌노인의 약 82%는 친구 · 이웃과 일주일에 두세번에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 203명 대상의 조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나 이웃과의 접촉이 높았다(Park & Han 2002). 농어촌거주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접촉은 1주일에 4번 이상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접촉빈도가 친척, 자녀와 비교할 때 이웃이 가장 높았다(Kim et al. 2008).

다음은 사회적 지원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전국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비동거자녀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제공하는 경우가 각각 73.5% 대 64.2%,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제공하는 경우가 각각 55.0% 대 10.7%, 수발 지원을 받는 경우와 제공하는 경우가 각각 55.6% 대 7.1%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즉 모든 영역에서 노인이 받는 경우가 주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친구보다도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Suggs 1989)가 있고, 친구이웃과 같은 비혈연관계망 구성원들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거나 준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Barker 2002). 농촌과 도시노인을 모두 포함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 친족, 비친족의 3가지 유형으로 사적관계망과의 사회적 지원양상을 조사한 Jun(2003)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은 자녀에 대한 지원제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형제자매, 친구이웃 순이었다.

농촌노인 대상의 Suh & Lim(2004)의 연구에서는 친구와는 가족의례에 참여하는 의례적 기능, 말동무를 해주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털어놓는 정서적 기능, 아플 때나 바쁠 때 도움을 주는 신체서비스적 기능,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는 경제적 기능 순서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웃과의 교류는 신체서비스적 영역이 가장 높고,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는 89.1%가 자녀라고 응답한 반면, 실제생활에서 자

녀는 친구보다 교류의 정도가 떨어졌다.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수단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8점 만점에 4.29점이며, 친구나 친지로부터 받는 경우는 8점 만점에 4.13점으로 자녀지원의 평균점수가 친구 및 친지 지원 점수 보다 약간 더 많았다. 전통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제시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농촌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친구이웃과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상호교환하고 있었으며, 도구적 지원이나 신체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Kim 2011).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의 자녀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원의 양과 영역별로도 자녀와 이웃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한다.

3.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원

사회적지원의 크기와 접촉빈도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Lee & Chun(2011)의 연구결과에서는 비동거자녀 및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Jeong(2012)의 연구에서도 농촌노인은 친구 · 이웃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국외 연구에서도 친구이웃 등과의 사회적 유대감이 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성향을 낮추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gisawa et al. 2002; Adams et al. 2004). 특히 여성독거노인의 경우처럼 취약성이 높은 경우, 친구나 친척들과의 접촉은 정신건강과 관련되었다(Michael et al. 2001). 중국의 농촌노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가족, 친구, 이웃, 공식적 지지 모두 포함)이 높을수록 노인의 고독감 및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났다(Wu et al. 2010; Xie et al. 2010).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스트레스 관련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노인의 연령별 차별성을 분석한 Matt & Dean(1993)의 연구에서는,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연소노인(50세부터 70세)의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없었으나, 고령노인(71세 이상)의 스트레스는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고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서 사회적 지원에 덜 의존적인 반면 고령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가족의 지지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Park & Moon 2012). Heo(2012)의 연구에서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지지는 유의미하였으나 자녀지지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Lee & Park(2009)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지지는 영향력이 없었으나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손자녀와의 대면접촉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Bea(2004)의 연구에서는 이웃으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친구이웃 등의 사적 관계망의 사회적 지원이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Chou et al. 2006; Russell 2009)와 친구이웃과의 관계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이나 접촉빈도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Potts 1997; Choi & Lee 2003).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자녀 및 이웃과의 사회적 지원의 크기와 내용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관계망으로 비동거자녀와 이웃과의 교류 및 지원 정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어떤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전국 농촌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3단 층화무작위추출로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을 65세 이상 인구 규모에 따라 총 4개의 권역으로 층화하였다. 지역규모 내 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50개 읍/면을 추출하고, 50개 리를 선정하였으며, 1

개 리 당 20명을 할당 추출하였다. 다음에 골목이나 자연부락별 가구방문으로 진행하되, 조사대상 가구 선정은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 건너 한 집씩 조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을 거친 조사원들이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을 병행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일정은 2013년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30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1,000명 중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가구 294명과 노인부부가구 470명을 선택하여 총 764명의 노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가족관계, 식생활, 경제생활, 텃밭 등의 농사일, 여가 및 문화생활, 주거환경, 마을의 안전상태,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1점 매우 불만족에서 5점 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s α=.849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비동거자녀 및 이웃(친구포함)과의 사회적 지원구조와 영역별 지원이다. 사회적 지원의 측정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사회적 지원 구조 변수인 접촉빈도는 "거의 연락(왕래)하지 않음"에서부터 "거의 매일 연락(왕래)"까지1~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락과 왕래빈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촉빈도의 측정은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과 비동거자녀와는 연락빈도로 측정하였고,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왕래빈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원 영역을 도구적 지원,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도구적 지원은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과 같은 도움을 주고받는지', 신체적 지원은 주로 '간병, 수발, 병원동행과 같은 돌봄을 주고받는지',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지'로 측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수혜와 제공을 받는 경우 1, 받지 않는 경우 0으로 부호화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월 생활비 매우 부족함' 1점에서 '매우 충분함'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가능성을 10개 항목에 걸쳐 1~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18.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녀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유형별 사회적지원과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카이제곱 검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농촌노인의 자녀와 이웃과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련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노인독거가구 294명(38.5%), 노인부부가구 470명(61.5%)으로 총 764명이다. 노인독거가구는 여성노인이 87.8%로 남성노인 12.2%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노인부부가구에서 65-74세가 가장 많았으며, 85세 이상에서는 노인독거가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by living arrangement

Classificatio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Elderly two-person household	Total	χ^2
Gender	Male	36(12.2)[1)]	281(59.8)	317(41.5)	168.396***
	Female	258(87.8)	189(40.2)	447(58.5)	
Age	65-74	128(43.5)	316(67.2)	444(58.1)	45.049***
	75-84	136(46.3)	137(29.1)	273(35.7)	
	≥85	30(10.2)	17(3.6)	47(6.7)	
Education	No school	138(46.9)	88(18.7)	226(29.6)	80.709***
	Elementary	131(44.6)	262(55.7)	393(51.4)	
	≥Middle school	25(8.5)	120(25.5)	145(19.0)	
Economic status	Sufficient	40(13.6)	91(19.4)	131(17.1)	17.955***
	Moderate	91(31.0)	192(40.9)	283(37.0)	
	Insufficient	163(55.4)	187(39.8)	350(45.8)	
Health status	Satisfied	44(26.8)	120(25.5)	164(21.5)	19.879***
	Average	107(36.0)	190(40.4)	297(38.9)	
	Unsatisfied	143(48.6)	160(34.0)	303(39.7)	
Religion	No	145(49.3)	284(60.4)	429(56.2)	9.060**
	Yes	149(50.7)	186(39.6)	335(43.8)	

[1)]N(%)

**p<.01, *** p<.001

(10.2%)가 노인부부가구(3.6%)보다 더 많았다. 독거가구는 교육수준이 무학과 초졸 이하인 경우가 많았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중졸 이상이 25.5%로 학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서 월생활비가 충분하다는 노인부부가구가 19.4%로 독거가구 13.6%보다 더 높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노인독거가구 48.6%로 노인부부가구 34.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노인독거가구 49.3%, 노인부부가구 60.4%로 나타났다.

2. 농촌노인의 자녀 및 이웃과의 사회적지원

Table 2는 사회적 지원의 구조적 측면에서 노인과 비동거자녀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의 결과이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전체가구에서 거의 매일이 16.0%이며, 주2-3회 24.1%, 주 1회 29.8%, 한달에 1-2번 24.1%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노인이 비동거자녀와 주 1회 연락한다가 29.5%인 연구(Lee & Park 2009)와 36.5%인 연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거주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유의미하였지만(t=-1.982, p=.048) 이웃과의 접촉빈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t=.118, p=.906). 먼저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독거가구에서 거의 매일이 14.8%이며, 주2-3회 33.9%, 주 1회 28.6%, 한달에 1-2번 27.2%, 1년에 서너번 3.2%이다. 노인부부가구에서는 거의 매일이 16.6%이며, 주2-3회 25.7%, 주 1회 30.5%, 한달에 1-2번 22.2%, 1년에 서너번 3.0%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의 접촉빈도로 계산해보면 독거가구가 77.3%로 노인부부가구 72.8%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농촌거주 노인부부가구가 독거가구보다 자녀와의 접촉이 높았다는 선행연구(Park & Han 200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런 차이는 조사대상

Table 2. Contact frequency with adult children and neighbors by living arrangement

Classification	Contact frequency with adult children			Contact frequency with neighbors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Elderly two-person household	Total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Elderly two-person household	Total
Almost everyday	42(14.8)[1)]	77(16.6)	119(16.0)	173(58.8)	286(60.9)	459(60.1)
2-3 times per week	61(33.9)	119(25.7)	180(24.1)	73(24.8)	106(22.6)	179(23.4)
Once a week	81(28.6)	141(30.5)	222(29.8)	27(9.2)	37(7.9)	64(8.4)
1-2 times per month	77(27.2)	103(22.2)	180(24.1)	8(2.7)	15(3.2)	23(3.0)
Almost never	21(7.4)	23(4.9)	47(6.0)	13(4.4)	26(5.5)	39(5.1)
Total	283(100.0)	463(100.0)	746(100.0)	294(100.0)	470(100.0)	764(100.0)

[1)]N(%)

이 다르거나 자녀와의 관계 및 친밀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전체가구에서 거의 매일이 60.1%이며, 주2-3회 23.4%, 주 1회 8.4%이다. 즉 주 1회 이상이 9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독거가구에서 거의 매일이 58.8%이며, 주2-3회 24.8%이다. 노인부부가구에서는 거의 매일이 60.9%이며, 주2-3회 22.6%이다.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서 거의 매일이나 주2-3회 접촉하는 빈도가 약 80%를 넘고 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농촌노인의 이웃과의 주 1회 이상 왕래빈도는 노인독거 85.4%, 노인부부 75.5%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농촌노인의 약 82%는 친구이웃과 일주일에 두세 번에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2).

농촌노인과 자녀 및 이웃과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적지원에 대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먼저 노인과 비동거자녀와의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면, 전체노인이 비동거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높았다. 즉 도구적지원의 수혜와 제공은 각각 50.0% 대 13.1%, 신체적지원의 수혜와 제공은 각각 44.5% 대 6.8%, 경제적지원의 수혜와 제공은 각각 79.2% 대 38.7%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노인이 비동거자녀로부터 사회적지원을 받는 경우가 제공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전국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보다 많이 받고 적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사회적 지원 양상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제공은 노인부부가구 43.2%로 노인독거가구 31.2%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이는 노인부부가구가 독거가구보다 월생활비가 충분하다고 인지하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노인과 이웃의 사회적지원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이 이웃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도구적지원의 수혜와 제공은 각각 11.7% 대 14.8%, 신체적지원의 수혜와 제공은 각각 8.8% 대 13.8%, 경제적지원의 수혜와 제공은 각각 8.6% 대 17.9%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도구적, 신체적지원과 비교할 때 이웃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자녀보다 적으나, 이웃에게 주는 경우는 자녀와 비슷한 수준을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웃은 가까이 거주하여 쉽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농촌독거노인 대상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원과 신체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는 10% 미만의 분포를

Table 3. Social support by living arrangement

Classification	Instrumental support			Physical support			Financial support		
	Single	Two	Total	Single	Two	Total	Single	Two	Total
Receive from children	51.1[1)]	49.4	50.0	48.5	42.2	44.5	80.5	78.4	79.2
	χ^2 =.172			χ^2 =2.348			χ^2 =.393		
Provideto children	15.6	11.6	13.1	6.1	7.2	6.8	31.2	43.2	38.7
	χ^2 =2.058			χ^2 =.297			χ^2 =8.824**		
Receive from neighbors	15.3	9.5	11.7	11.4	7.2	8.8	8.2	8.8	8.6
	χ^2 =5.677*			χ^2 =3.737*			χ^2 =.079		
Provide to neighbors	19.2	11.9	14.8	14.6	13.3	13.8	18.1	17.8	17.9
	χ^2 =7.250**			χ^2 =.246			χ^2 =.015		

[1)]%

*p<.05, ** p<.01

Table 4. Life satisfaction by living arrangement

Total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Elderly two-person household	t
3.13±0.57	3.04±0.52[1)]	3.17±0.58	-2.223*

[1)]Mean±SD

*p<.05

보였는데(Kim 2011), 본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Suh & Lim (2004)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이웃과의 교류는 신체적 영역이 가장 높고,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이웃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도구적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주는 경우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지원이 농촌에서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과 같은 현물이 포함되어 온 결과일 수도 있으며, 요인파악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가구유형별로 이웃과의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의 수혜와 제공은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보다 도구적지원(15.3% 대 9.5%)과 신체적지원(11.4% 대 7.2%)에서 더 많이 수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p<.05). 또한 독거노인(19.2%)이 노인부부가구(11.9%) 보다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3.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3점으로 중간점 2.5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보통 또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난 연구(Kang & Lee 2007; Heo 2012; Jeong 2012)와 비슷한 결과이다.

거주유형별로 생활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노인독거가구보다 생활만족도가 다소 높았는데, 이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05). 이는 선행연구결과(Lee et al. 2003; You & Park 2003; Yeh & Lo, 2004; Kim et al. 2008)와 일치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독거가구는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나이가 더 많고, 무교육자가 더 많으며,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런 차이가 가구유형별로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부부가구는 심리적 지지원이 될 수 있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어 생활만족도가 높으리라 유추된다.

4. 농촌노인의 가구유형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Table 5는 독거노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요인, 자녀와의 사회적지원, 이웃과의 사회적지원 요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 종교는 비연속변수이기 때문에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으며, 연령은 해당단위로 연속변수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각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alation Fator) 값을 살펴보았으나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1.0을 넘지 않았으며, VIF 값은 1.119-5.281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1단계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 연령, 종교유무, 학력,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 등 7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7개 변수의 설명

Table 5.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stant	2.440***		1.335**	
Gender(male=1)	-.078	-.052	.041	.027
Age	-0.16	-.020	-.040	-.048
Religion(yes=1)	-.049	-.046	.024	.022
Education	.047	.056	.022	.027
Economic status	.320***	.453	.301***	.425
Health status	.083	.121	.097	.143
IADL	-.069	-.045	.018	.011
Social support with children				
Contact frequency			.079*	.176
Receive instrumental support			.021	.019
Provide instrumental support			.168	.122
Receive physical support			-.195	-.182
Provide physical support			-.299	-.156
Receive economic support			.141	.110
Provide economic support			.154	.142
Social support with neighbors				
Contact frequency			.139*	.191
Receive instrumental support			-.017	-.011
Provide instrumental support			.226	.184
Receive physical support			-.155	-.081
Provide physical support			.270	.190
Receive economic support			.026	.016
Provide economic support			-.086	-.028
R^2	.297		.477	
R^2 change			.180	
F	6.646***		4.163***	
df1(df2)	7(110)		14(96)	

* p<.05, ** p<.01, *** p<.001

력은 29.7%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생활수준(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2단계에서는 노인과 비동거자녀 그리고 이웃간의 사회적지원 요인인 접촉빈도와 도구적 지원 수혜와 제공, 신체적지원 수혜와 제공, 경제적 지원 수혜와 제공의 변수를 1단계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은 47.7%로 나타났으며, 모델 1과 비교하여 18%의 설명력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변화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량이다. 2단계에서 유의미한 사회적지원 변수는 자녀와의 접촉빈도(p<.05)와 이웃과의 접촉빈도(p<.05)로 나타났다. 즉 자녀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 및 이웃과의 사회적지원의 기능적 측면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two-person households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stant	2.110***		1.679***	
Gender(male=1)	.223***	.188	.220***	.186
Age	-.071	-.063	-.056	-.049
Religion(yes=1)	.239***	.203	.218***	.185
Education	.030	.035	.034	.039
Economic status	.372***	.475	.364***	.465
Health status	.138***	.179	.125***	.161
IADL	-.097	-.048	-.029	-.014
Social support with children				
Contact frequency			.064*	.112
Receive instrumental support			.081	.069
Provide instrumental support			-.024	-.014
Receive physical support			-.046	-.038
Provide physical support			-.057	-.025
Receive economic support			-.064	-.048
Provide economic support			.078	.067
Social support with neighbors				
Contact frequency			.039	.053
Receive instrumental support			.067	.032
Provide instrumental support			.264*	.155
Receive physical support			-.060	-.025
Provide physical support			-.234	-.142
Receive economic support			-.194	-.086
Provide economic support			-.071	-.048
R^2	.461		.508	
R^2 change			.47	
F	37.323***		14.304***	
df1(df2)	7(305)		14(291)	

* p<.05, ** p<.01, *** p<.001

Table 6은 노인부부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요인, 비동거자녀와의 사회적지원, 이웃과의 사회적지원 요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1.0을 넘지 않았으며, VIF 값은 1.023-3.574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 연령, 종교유무, 학력,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등 7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7개 변수의 설명력은 46.1%로 나타났으며, 성별($p<.001$), 종교유무($p<.001$), 주관적 생활수준($p<.001$), 주관적 건강($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즉 남성노인, 종교가 있는 경우,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노인부부가구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2단계에서는 노인과 비동거자녀 그리고 이웃간의 사회적지원 요인인 접촉빈도와 도구적 지원 수혜와 제공, 신체적 지원 수혜와 제공, 경제적 지원 수혜와 제공의 변수를 1단계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은 50.8%로 나타났으며, 변화량이 4.7%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 유의미한 사회적지원 변수는 자녀와의 접촉빈도($p<.05$), 이웃에게 도구적 지원 제공($p<.05$)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은 경우와 이웃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노인부부가구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거주 노인 764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자녀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와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 양 측면에 관하여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3점으로 중간점 2.5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는 배우자 없이 혼자살고 있는 노인의 특성이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또한 건강도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회적 지원이 미약하다는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13)의 보고를 반영한 결과로 독거노인은 생활만족도가 낮은 취약한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도 노인 1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주 1회 이상이 69.9%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비동거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보면, 독거가구에서 주 1회이상이 77.3%로 노인부부가구 72.8%보다 다소 높았다. 전체노인의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주 1회 이상이 9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주 1회 이상이 독거가구 92.8%, 노인부부가구 91.4%이다. 전체적으로 자녀보다는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와는 거주 거리가 먼 반면 이웃과는 가까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본다. 농어촌거주 여성독거노인의 직접적인 접촉빈도가 친척, 자녀와 비교할 때 이웃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Kim et al. 2008)와 자녀는 친구보다 교류의 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Suh & Lim 2004)와 동일한 결과로 보여진다.

셋째, 자녀와의 사회적지원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비슷하게 받고 있었다. 반면에 자녀에게 제공하는 신체적 지원과 경제적지원은 노인부부가구가 노인독거가구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상 노인부부가구가 노인독거가구보다 건강하고 생활형편이 좋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유추된다. 반면에 이웃과의 사회적지원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이웃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지원을 받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농촌의 특성상 가까이 사는 이웃과 교류의 기회가 많은 경우

수혜와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추측되어지며, 이에 대해 더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수혜가 이웃으로부터의 수혜보다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혈연관계인 자녀와의 관계가 비혈연관계인 이웃보다 사회적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가족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혈연관계와의 사회적지원이 비혈연관계인 이웃보다 더 활발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Suggs 1989; Jun 2003)와 비슷한 결과로 보인다.

넷째, 본 조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독거노인의 경우는 주관적 생활수준이 유의미한 변수이며, 노인부부가구는 성별, 종교유무,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Kang & Lee 2007; Liu & Guo, 2008; Cho & Kim 2011: Oh & Lee, 2011).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의 68.6%,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령자는 28.9%, 노후준비율은 유배우 노인 50.9%, 무배우 노인 23.8%(Statistics Korea 2013)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Park & Han 2002; Sim & Park 2002; Han & Kim 2004; Lee 2009; Park 2010; Choi & Cho 2013)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본 조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원의 구조적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최종모델에서 독거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유의미한 변수이었고, 노인부부가구는 자녀와의 접촉빈도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말벗을 해줄 누군가를 찾으며, 그 대상으로 이웃과의 접촉을 더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노인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교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

사회적지원의 기능적 측면에서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지만,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이웃에게 도구적지원 제공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나이가 많고, 건강수준과 경제적 형편이 낮은 편이라 교환자원이 부족하여 이웃과의 도구적, 신체적 지원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노인부부가구는 배우자에게 세탁, 청소, 식사준비 등의 도구적 지원을 항상 제공하는 편이라 이웃에게도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한편 Bea(2004)의 연구에서는 이웃으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웃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의 건강이 좋은 경우와 이웃과 친밀한 경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이웃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년기의 사회적지원 제공은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되며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Schwarz et al. 2005; Lowenstein et al. 2007)을 뒷받침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형편과 함께 객관적인 경제상황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다. 노인의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빈곤이며, 생활비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는 비율이 높다.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감소되고 있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공적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가구형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은 사회적지지자원이 부족하므로 생활밀착형 서비스(간병 · 목욕 · 가사서비스, 식사제공, 이야기 상대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 대상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

원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더 필요한 서비스 내용의 확대가 요망된다. 독거노인 친구맺어주기 사업이나 경로당의 개보수를 통한 공동거주생활사업이 결실을 맺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노인부부가구는 노인독거가구로 이행하는 전 단계에 속한다고 볼 때,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건강을 유지시켜 부부가 해로할 수 있도록 건강서비스 제공에 더 강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원만한 부부관계 및 노인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지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사회지원망 확장을 위해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농촌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이 부족하지만, 마을 곳곳에 있는 경로당이 사회참여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노년층은 최신 정보기기의 미숙한 사용으로 사회로부터 더 소외되어 가고 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컴퓨터 교육 및 스마트폰 사용 교육은 자녀와의 접촉을 증가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노인들의 사회지원망에는 직계자녀, 손자녀, 배우자, 친형제자매, 친인척 등 혈연관계망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자녀만을 포함시켰다. 가족관계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범위를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 및 이웃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둘째, 농촌의 경우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여가활동 관련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한 관계망의 내용적 측면과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Adams KB, Sanders S, Auth EA(2004)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independent living retirement communities: Risk and resilience factors. Aging Ment Health 8(6), 475-485

Aday RH, Kehoe GC, Farney LA(2006) Impact of senior center friendships on aging women who live alone. J Women Aging 18(1), 57-73

Barker JC(2002) Neighbors, friends, and other nonkin caregivers of community-living dependent elders.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57(3), S158-167

Bea JH(2004)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Focusing on the function of support by their children and neighbors. Soc Welf Policy 20, 197-216

Cho GM, Kim YS(2011) A stud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sense of the elderly at Korea rural areas. J Northeast Asia Res 26(2), 245-266

Choi KH, Cho DH(2013) Regional priority setting for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rough the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f urban and rural elderly. J Korean Urban Manag Asso 26(3), 49-70

Choi YM, Lee SJ(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single home-owned old people. J Welf Aged 22, 193-217

Chou KL, Chi I(2000) Comparison between elderly Chinese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s. J Geron Soc Work 33(4), 51-66

Chou KL, Ho AHY, Chi I(2006) Living alone and depression in Chinese older adults. Aging & Ment Health 10(6), 583-591

Han JR, Kim SH(2004)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self-esteem on the life-satisfaction of the older men and women in rural area. J Welf Aged 26, 91-118

Heo HJ(2012) A study on the ecosystem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Master's Thesis, Daegeon University

Jeong OJ(2012)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s of the rural elderly: Focused on factors such as activity, resource, and farming characteristic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ohn PD, Blanford AA, Strain LA(2006)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in urban and rural areas. International J Geriatr Psychiatr 21, 1175-1180

Jun HJ(2003) Providing informal support to others and its correlate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J Korean Geron Soc 23(4), 143-161

Kang HS, Lee JH(2007) The relationship of health and life of satisfaction on rural elderlies. Health Soc Sci 21, 51-64

Kim CS, Kim IK(2000)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ents in Korea. J Korean Geron Soc 20(2), 155-168

Kim EJ(2011) Social support networking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n rural area. J Soc Sci 28(2), 149-176

Kim EJ, Lee SY(2012) The informal social patterns and depression in rural elders: compared to urban elders. Soc Sci Res Rev Kyungsung University 28(2), 146-176

Kim SH, Kang HJ, Kim YJ(2008) The effects of a social network for female elders living alone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on their quality of life. Korean J Fam Welf 13(3), 51-71

Kim YS, Yoon HJ, Kwon JH, Moon HJ, Lee SK(2002)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living alone elderly in rural area. Korean J Rural Med 27(1), 65-78

Lee HJ, Chun DI(2011) The Influence of productiv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Comparative study between rural and urban elderly. J Korean Geron Soc 31(2), 419-437

Lee HJ, Park KA(2009) The family network typ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J Korean Geron Soc 29(2), 291-307

Lee HS(2003)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exchang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Sex and age group differences. J Korean Home Econ Assoc 41(4), 57-69

Lee JH, Han GH, Park GJ, Lee HK(2003)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 Korean Soc Rural Planning 9(2), 1-7

Lee YJ(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y subjective health recognition of rural elderly people participated in exercise program of community health center. Korea J Physical Edu 48(2), 321-330

Liu LJ, Guo Q(2008) Life satisfaction in a sample of empty-nest elderly: a survey in the rural area of a mountainous county in China. Quality Life Res 17(6), 823-830

Lowenstein A, Katz R, Gur-Yaish N(2007) Reciprocity in parent-child exchan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 Soc Issues 63(4), 865-883

Matt GE, Dean A(1993) Social support from friendship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elderly persons: Moderator effects of age. J Health Soc Behav 34(3), 187-200

Michael YL, Berkman LF, Colditz GA, Kawachi I(2001) Living arrangements, social integration, and change in functional health status. Am J Epidemiol 153(2), 123-131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2) 2011 National survey results on the elderly.

Nocon A, Pearson M(2000) The roles of friends and neighbours in providing support for older people. Ageing and Soc 20(3), 341-367

Oh YE, Lee JH(2011) The effect of adult-children support network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in rural area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2(4), 557-572

Park KH, Han HK(2002)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persons who reside in the rural area. Korean J Res in Geron 11, 43-61

Park OI, Moon H(2012) The effect of self esteem on psychological well being in elderly women: Focusing on family support as a moderator.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3(4), 399-409

Park SM(2010) A comparative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between urban and rural elderly. J Welf Aged 47, 137-160

Potts MK(1997)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 the importance of friends within and outside of a retirement community. Soc Work 42(4), 348-362

Russell D(2009) Living arrangements, social integration, and loneliness in later life: The case of physical disability. J Health Soc Behav 50(4), 460-475

Schilling O(2006) Development of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Another view on the paradox. Soc Indicators Res 75, 241-271

Schwarz B, Trommsdorff G, Albert I, Mayer B(2005) Adult parent-child relationship: relationship quality, support, and reciprocity. Applied Psy: International Rev 54(3), 396-417

Seo BS, Lee H(1995) The social support network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The comparison of the urban and the rural elderly. International J Human Ecology 33(3), 43-57

Sim MK, Park JM(2002)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urban and rural elderly. J Korean Community Nurs 13(4), 689-698

Sohn SY(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its' affecting factor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J Korean Geron Soc 26(3), 601-615

Son YJ(2010)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between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Focusing on adult children network and social network. GRI Review 12(3), 311-339

Statistics Korea(2013) 2013 Elderly statistics.

Suggs PK(1989) Predictors of association among older siblings. Am Behav Sci 33(1), 70-80

Sugisawa H, Shibata H, Hougham GW, Sugihara Y, Sugihaang J(2002) The impact of social ties on

depressive symptoms in U.S. J Soc Issues 58(4), 785-804

Suh SH, Lim HK(2004) A study of the functions of social network of rural elders living in Chonnam province. J Moral Edu 14(1), 179-203

Wu ZQ, Sun L, Sun YH, Zhang XJ, Tao FB, Cui GH(2010) Cor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ocial relationship among empty nest elderly in Anhui rural area, China. Aging Ment Health 14(1), 108-112

Xie LQ, Zhang JP, Peng F, Jiao NN(2010) Prevalence and related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ve symptoms for empty-nest elderly living in the rural area of YongZhou, China. Arch Gerontol Geriatr 50(1), 24-29

Yeh SCJ, Lo SK(2004) Living alone, social support, and feeling lonely among the elderly. Soc Behav Personal 32(2), 129-138

Yeung GTY, Fung HH(2007)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ng Kong Chinese older adults: Family first? Eur J Ageing 4, 219-227

Yoon HS(2003)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 Korean Geron Soc 23(3), 15-28

You KS, Park HS(2003)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senior people living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J Korean Geron Soc 23(4), 163-179